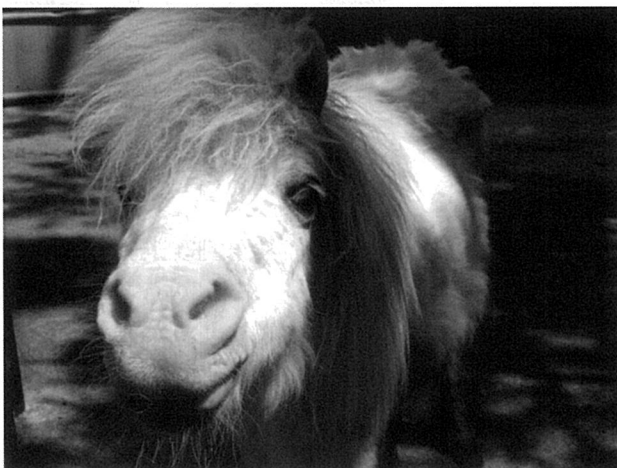




동물들에 관한 흑백의 명언들

최종욱

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
수의사/동물컬럼니스트
lovenat@hanmail.net



16C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근대철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데카르트는 -동물은 영혼이 없는 기계이고 오직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다.-라고 설파 했고 데카르트와 그를 따르는 합리주의 과학자들은 한술 더 떠 동물은 고통을 모르는 기계라며 마취 없이 해부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. 이는

지금까지 인간이 동물을 마음껏 지배하고 학살하는데 합리화를 시켜준 배경이 되었다.

이처럼 유명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인간의 총gun, 균germ, 쇠steel에 의해 위기에 몰린 동물들에게 서슬 퍼런 혹은 위안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. 데카르트의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 때문에 그는 동물애호가나 환경파수꾼들에게 영원한 숙적이 되어 버렸다.

인간의 말은 곧 인간의 역사이자 철학이다. 하지만 그 울림을 인간 자신들에게 편리할 때는 강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고 또 생활에 크게 영향이 없을 때는 그저 '쇠귀에 경 읽기'로 끝나고 만다. 하지만 인간에게서 그 작은 소리마저도 없다면 시애틀을 인디언 추장의 예언 같은 말이 진실이 될 지도 모른다.

- 동물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? 만약 모든 동물이 사라진다면 인간의 영혼의 외로움을 느끼며 죽게 될 것이다.- 그는 백인들이 미국들소들을 사냥하면서 오직 가죽만을 얻기

위해 대량 살상하고 가죽은 벗겨내고 고기를 초원에 버려두는 걸 보고, 비록 최소한의 사냥을 하지만 들소와 자연의 공동체처럼 더불어 살아온 인디안들에게 치명적인 적대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한다.

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.

-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진 후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. 지구상 주요작물 100개중 71가지를 꿀벌의 수분에 의해 유지된다고 한다. 식물이 없어진다면 초식동물부터 시작해서 생태계가 금방 무너져 내린다는 가정이었을 것이다.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 꿀벌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.

-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 국민들이 동물

-개는 자기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체- 라는 말을 남긴 조쉬 빌링스는 1800년대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며 '웃음은 영혼의 불꽃', '용서만큼 완벽한 복수는 없다.'라는 주옥같은 명언들을 남겼다.

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문제적 인물이자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

- 고양이는 신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품 - 이라고 했다.

채식주의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불교 철학의 근본을 이루는 부처의 말씀은

-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열반(삶과 죽음을 초월한 최고의 이상향)이므로 이끄는 물줄기로 들어가는 것이다. -

고대 그리스의 최고의 수학자이자 아직도 수험생들의 머리를 지끈 지끈 아프게 하는 피타고라스 역시

- 살아있는 생물이 다른 살아있는 생물을 죽

임으로 인해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가련한 죄악이며 추악함인가!-라고 강조했으며 본인도 평생 금육과 채식으로 살았다고 한다.

같은 동료 수의사이자 영국의 유명한 동물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해리엇도

- 나는 동물을 믿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. - 라고 했다. 그가 희망하는 걸 나 또한 희망한다.

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슭 올리는 명언은 생뱃쥐베리의 '어린왕자'에서 사막여우가 어린왕자에게 속삭인 말이다.

- 나는 아주 지루해.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내 생활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. 나는 너의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겠지. 그 발자국 소리는 어떤 발자국 소리보다도 다를 거야.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 밑으로 숨게 만들지. 하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불러내게 될 거야. - 가까이에서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생명체는 별처럼 많다. fin~ ♡



들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. - 정치인이자 비폭력주의자로 유명한 인도의 지성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다. 이런 비슷한 류의 말은 성프란치스코, 임마누엘 칸트, 톨스토이, 오스카 와일드를 비롯한 시대와 지위를 초월해서 여러 위대한 분들이 남기셨다. 동물을 태하는 태도가 바로 그 사람 그 나라의 성격이라는 것이고,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 역시 학대한다고 한다.

박물학자이며 '종의 기원'을 쓴 위대한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도 역시 생물학자다운 명언을 남겼다.

-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본능이다. - 자연에 대한 이런 신념과 사랑이 그를 위대한 생물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했을 것이다.

우리와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명언들 또한 빼 놓을 수 없다.